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에 힘쓰니라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일 예배 2026년 2월 22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다 찬양하여라 / 찬송가 21(신) 21(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인애하신 구세주여 / 찬송가 279(신) 337(구)

기도 / 한광기 장로

성경 봉독 / 사도행전 1장 13-14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단 하나라도 순종한다면 / 박화신 목사

찬송 / 아버지여 나의 맘을 / 찬송가 424(신) 216(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이 천지간 만물들아 / 찬송가 5(신) 3(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이해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병 고침, 바다의 잠잠함, 죽은 자의 회복, 영광의 계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메시아를 정치적 왕국 회복의 기대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기대의 구조였습니다.

2. 잘못된 기대는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너무 달랐고, 십자가 앞에서 공동체는 붕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 자체보다 예수님이 가져다줄 미래를 더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3. 부활 이후 제자들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재교육을 받았고,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령충만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단 하나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뀌게 됩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일 설교

보이지  
않는 나라

요 18:36  
행 2:42-47

### 1.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긴장

지난주 우리는 조금 불편한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있는 사람들’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많지만, 실제로는 힘과 이해 관계, 정치적 계산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일들은 벌어지고, 책임은 흐려진 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분명한 것은, 힘의 통치와 경제적 통제로 유지되는 구조 속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 2. 작고 감추어진 방식으로 자라는 나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 안에서 사랑과 순종,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겨자씨처럼 작고,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만큼 큼니다. 초대 교회 역시 세상의 영향력을 장악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모여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어 갔습니다. 세상의 매력과 하나님 나라를 혼동하지 않았기에, 그 나라는 조용히 그러나 실제로 자라났습니다.

### 3. 성령의 약속 위에 세워지는 보이지 않는 통치

부활과 승천 이후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눈에 보이는 기반이 아니었습니다. 건물도, 제도도, 재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는 약속,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약속 위에서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이고, 작아 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통치. 지금도 그 나라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사도행전 성경공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5. 다음 주일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성찬식 있습니다.
6. 미안마 목장 모임 오늘 주일 예배외 친교 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미안마 목장 / 한규철(목자) 서민정 윤진 한광기 한미숙 한정임**
7. 파라과이 목장 2월 28일 토요일에 모입니다.  
**파라과이 목장 / 조창(목자) 김정신 박래석 박송화 조은영 최명희 최상천**

## 3월 예배 위원

안 내	조창	최명희
기 도	최명희(1) 최상천(8) 조은영(15) 박래석(22) 한규철(29)	

##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에 힘쓰니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작은 순종 하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조금씩 하나님 나라 쪽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특별한 체험을 찾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작은 순종을 이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그 한 걸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